

【우리 소설 우리말】

아홉 장의 편지가 전하는 것

- '이사종의 아내'에 대하여 -

김철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기생 황진이(黃眞伊)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 진이의 미색에 반한 동네 총각이 상사병을 앓다 죽었는데, 상여가 그녀의 집 대문 앞을 지나면서 꿈쩍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나가 한 잔 술로 그 영혼을 달랬더니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 - 이런 설화를 모르는 한국인도 거의 없을 것이다. - 그런가 하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의 면벽(面壁) 수도(修道)를 하루아침에 도로아미타불로 날려 버린 지족(知足) 선사는 단 한 번의 실수(사실이든 아니든)로 영구불멸의 망신살이 뻗친, 역사상 가장 불운한 수도승의 예로 기억될 만하다. 박연폭포, 황진이, 서경덕(徐敬德)을 흔히 '송도(松都) 삼절(三絶)'이라 부르는데, 서경덕은 지족 선사와는 달리 황진이의 육탄 공세를 끄덕 없이 이겨냄으로써 그녀로부터 '마음적으로' 존경을 얻음과 동시에 명성도 함께 얻었다는 이야기 또한 널리 알려진 설화의 하나이다.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몸과 마음이 부르는 바를 따라 절세가인과의 황홀한 하룻밤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마구니'의 공격을 물리친 부처의 이름을 얻는 대신 식어빠진 송늪같은 나날을 보낼 것인가, 이 만만치 않은 인생사의 난제는 황진이가 살았다는 16세기(그녀는 대체로 1520

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생존했다고 전해진다.) 이래 수많은 한국인의 즐거운 상상의 소재가 되어 왔고, 당연히 술한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었다.

황진이를 문학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최초의 문인, 더구나 그로 인해 필화(筆禍)까지 입은 문인은 이미 황진이 당대부터 있었으니 백호(白湖) 임제(林梯: 1549-87)가 그러하다. 그는 서도병마사의 직을 받아 부임하러 가는 길에 그녀의 무덤에 술을 올리고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어찌고 하는, 오늘날에도 유명한 시조 한 수를 읊었다가 부임도 못하고 파직을 당했다고 하니, 그녀와 관련된 문학관의 일들은 연조가 꽤 오래되었고 죽어서까지도 여러 남성들의 신세를 고달프게 만든 여인으로는 아마 그녀만한 인물도 없는 듯하다.

알다시피 황진이 스스로가 문학사에 기록되는 뛰어난 문인이다. 그녀가 남긴 작품으로 현존하는 것은 시조 6수, 한시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동짓달 지나긴 밤 한 허리를 들헤 내어’로 시작되는 시조일 것이다. 이 시조의 빼어난 언어 운용과 시적 이미지의 조합, 그 상상력의 깊이에 관해서는 이미 훌륭한 분석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산리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하는 시조도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인데, 이것은 조선 왕조의 종실인 귀족 벽계수(碧溪守)의 이름을 가지고 한 일종의 말놀이(pun)로서 역시 격조가 높고 은근한 맛이 심금을 울린다. 이 시조의 등장인물 벽계수는 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기꺼이(?) 넘어가 종친으로서의 근엄한 지체를 여지없이 구겼다고 전한다.

이렇듯 설화는 그녀와 관계된 많은 남성 명사(名士)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남성들 중에 그녀와 오래 동안 동거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남성은 당대의 명창이며 춤꾼인 무관 이사종(李士宗)이라고 한다. 황진이와 이사종의 관계는 기생과 한량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기량을 알아주는 예술적 동지로서의 결합이라는 점이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요인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이사종에게 3년간의 계약동거를 제안하고 그것을 지킨 후 세상과의 연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일화 역시 이사종과 그녀와의

관계를 신비화하는 데에 큰 몫을 했다.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시작되는 시조는 이사종에게 바친 것이라고도 한다.

서슬 푸른 신분 질서의 벽, 숨 막히는 주자학적 도덕률의 금압, 이 중세의 캄캄한 어둠 한 복판에서 황진이와 그 주변의 남성들이 벌이는 아슬아슬한 유혹과 일탈의 이야기들은 그녀가 죽은 지 400년이 넘어 지난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는 창작의 원천으로서 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나의 눈을 끄는 것은 한무숙(韓戊淑)씨의 소설 ‘이사종의 아내’(1976)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황진이와 그 ‘관계 당사자 간’의 애절한 혹은 짜릿한 애정담을 다룬 것들임에 반해, 이 소설은 그 당사자들의 뒤에 가려진 인물, 즉 황진이와 살림을 차린 이사종 아내의 시점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황진이와 이사종의 애정 관계에서 가장 소외된 그늘 속의 인물, 즉 이사종의 본처(本妻)의 시점으로 그들의 애정담을 말하게 하는 독특한 기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황진이와 이사종의 관계를 다룬 작품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사종의 아내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없다. 이 소설의 남다른 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사종의 아내를 서술자로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이 소설의 특별함을 꼽는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을 특별한 것으로 기억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소설이 취한 형식의 독특함과 특별한 한국어의 구사에 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외 한마님 전 소(疏) 상살이

통곡 통곡하오며

외 한아바님 상사(喪事)는 무슨 말씀을 아뢰리까. 춘추 높으시오나 평일에 기력 강건하옵시니 환후(患候)가 비록 침중(沈重)하옵시나 회춘(回春)하옵시기 바랬삽더니 천천만(千千萬) 몽매(夢寐) 밖, 흉음(凶音)이 이를 줄 어찌 뜻하였아오리까. 줄지에 거창하옵신 일을 당하옵시니 영년 해로하옵신 정리 차마 측량치 못하옵나이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쓰인 현대소설의 문장이라는 사실 앞에서 독자는 우선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마님’이 ‘할머님’의 고어이며 ‘한아버님’이 ‘할아버님’의 고어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疏)’는 ‘상소(上疏)’에서와 같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가리키는 말이나 웃어른에게 올리는 편지의 의미로도 쓰였던 듯하다. ‘상살이’는 ‘상사리’(上白是)라고도 쓰는데, ‘사뢰어 올립니다.’라는 뜻으로 웃어른에게 올리는 편지의 첫머리나 끝에 붙이는 관용어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문장은 외할아버지의 상(喪)을 당한 외손녀가 외할머니에게 보낸 문안 편지의 첫머리임을 알 수 있다. 편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수의범백(壽衣凡百)은 상제(喪制) 관비(辦備)하올 줄 아오나 양례(襄禮)는 어느때로 완정(完定) 택일(擇日)하압셨는지 외오 있사오니 즉시 나가서 뵈옵지 못하와 출가의외인이라 하옵더라도 정례(情禮)와 인사(人事)가 아니온지라 통박통박(痛駁痛駁)하오이다.

촉처(觸處)에 유한지통(遺恨之痛)을 어찌 관억(寬抑)하오시라 하정(下情)에 못내 일컫사오며 애훼망극(哀毀罔極)중 기후(氣候) 안녕 부지(扶支)하오서 큰 병환이나 없으신가 일념(一念)이오며 내내 기력 천만 부지하압심 바라압나이다.

갑자 납월 초엿셋날 외손녀 살이

갑자년 납월(臘月:음력 선달) 어느 대가 맥 외손녀가 외할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출가의외인이라 ‘외오(외따로, 멀리)’ 있어서 장례에도 참석치 못했다. 편지는 외할머니를 위로하고 부디 건강을 챙기시라는 외손녀의 문안 인사를 담고 있다. 이른바 내간체 문장의 전형이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흥미를 끌만한 사건도 없다. 더구나 어려운 한자와 고어 투성이의 옛 문장을 참을성 있게 읽어 나갈 현대 독자는 별로 없을 듯하다. 놀랍게도 소설은 이런 편지 아홉 편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편지는 을축년, 곧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듬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일년상을 맞아 다시 외할머니에게 보낸 문안 편지이다.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의례적인 인사말, 관용적인 어투로 일관하는 짧은 문안 편지이다. 곧이어 그 다음해, 즉 외할아버지의 삼년상을 맞아 병인년에 보낸 짙막한 안부 편지가 이어진다. ‘한마님께옵서 여막(廬幕)에서 일보(一步) 출입 없으시며 기년(暮年)을 거듭 하옵셨단 말씀 그 정렬(貞烈) 정전(貞專)하옵심 만고의 거울되오시며 정문(旌門)안에 우러러 비을 뵈’ 이라는 말에서, 화자의 외할머니가 남편의 삼년상을 꼬박 곁에서 지켰다는 사실,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렵듯이 짐작된다. 문제는 그 다음 편지부터이다.

외손녀는 삼년상을 마친 외할머니에게 여섯 달쯤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낸다. 이번 편지는 그 전의 편지들과는 달리 단순한 문안 인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은 외할머니에게 무언가 털어놓고 싶은 말이 가득한 것이다. ‘수다’를 칠거지악으로 금하는 엄한 규율의 무게가 몸을 짓누르는 한편으로 가슴 속에 쌓인 원한과 슬픔을 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정이 마침내 할머니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 속에, 그것도 삼년을 기다린 끝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 조선 사대부가(家) 여성 교양의 최정점에 있을 이 여성은 결코 한 숨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다. 의례적이고 관용적인 극진한 문안 인사(복중 일기 고로압지 못하온데 외 한마님께옵서 기체후 일행 강건하옵신 문안 아옵고저 하나이다.) 이후 편지는 서외조모(庶外祖母)의 방문이 있었음을 알린다. 서외조모라면 외할아버지의 첩(妾),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외할머니에게는 ‘시앗’이 되는 셈이다.

서외조모 전일과 달리 숙연하와, ‘대방마님께서 무료해 하시니 지척에서 지성껏 피시고 싶은데 이서방댁 의향은 어떠하시우’ 하옵기, ‘그러하시우. 할미씨(서조모를 칭함) 음성이 고우시고 할머님께서두 이제 안력이 전 같지 않으시니 좋아하시는 책두 읽어 드리구 가곡(歌曲) 시창(詩唱)두 들려드리시구려’ 하였나이다.

남편이 죽은 후, 늙은 첩이 본처를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외손녀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본댁의 정실 외손녀에게 ‘해라’를 못하고 ‘이 서방댁’이라고 부르는 첩의 지위, ‘할미씨’라고 부르며 ‘하계’를 하는 손녀의 모습도 한 눈에 드러난다. 또한 가곡이나 시창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 서조모는 기생 출신임을 암시한다. 외손녀가 이 서외조모의 방문을 알린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

한마님께로서 숙덕(淑德) 유여(裕餘)하오시며 관용하심이 바다와 같사와 소시부터 일절 투색(妬色)이 없으셨기, 서외조모의 경모(敬慕)함이 지극하와 아름답더이다.

‘시앗’에 대한 질투가 일체 없어 마침내 그 ‘시앗’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늘그막에는 ‘가까이서 뵈시는’ 관계가 된 첩과 본처의 모습, 그것을 ‘아름답더이다’ 하고 칭송하는 외손녀의 이 극진한 언사는 한 시대의 율법이 공적(公的) 언어 수행의 영역에서 어떻게 관철되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로서 읽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외손녀가 굳이 ‘서외조모’의 이야기를 꺼낸 까닭이다. ‘할머님의 덕이 실로 높으시다.’고 극진한 칭송을 바치고는 있지만,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이다. 겸손(謙遜), 경애(敬愛), 사양(辭讓)의 극치를 보여주는 긴 문장이 다시 이어진 이후 마침내 손녀는 ‘답답 곤욕지사(困辱之事) 허다 하와 수다 무려하움을 무릅쓰고 감이 알외오니 여기오셔 노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시작으로 ‘풍류남아의 내자(內子)되어’ 겪는 자신의 서러운 신세를 줄줄이 엮어낸다. 이미 이 편지의 수신자인 외할머니는 손녀의 입에서 ‘서외조모’가 언급되는 순간 자신의 일평생이 그대로 떠올랐을 터, 외손녀의 하소연을 자기 일처럼 들을 청자로서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외손녀는 쌓이고 쌓였던 ‘하정(下情, 아래 사람의 사정)’을 마음껏 쏟아낸다. 남편 이사중은 ‘달을 불러 노닐고 나비와 함께 꽃을 희롱한다는 풍류남아’로서 ‘육척 장신이 장승 같’아 ‘춤 추면 백학이 나는 듯 선인(仙

人)이 노니는 듯, ‘장안 창기(娼妓)가 한가지로 따르고’, ‘연일연락(連日宴樂)의 주육(酒肉)에 잠겨’ 지낸다. 이렇듯 남편이 술과 여인들을 찾아 풍류를 즐기는 사이에 아내인 자신은 그 준비를 위해 ‘반비(飯婢), 찬비(饌婢)(음식 준비하는 노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다음의 인용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사의 하나로 손꼽을 만한 장면이다.

오늘 밤도 사랑(남편을 말함)에서는 어느 장화(牆花)를 꺾고 있사온지 귀가지 아니하옵고 존고(尊姑, 시어머니)께서는 사직골 작은 소고(小姑, 시누이)택에 행차하시어 준행 남매만 어머니와 집에 머물고 있사와 오래도록 지필묵을 대하고 있사옵니다. 곁에서 오목이가 반은 졸며 보선 불을 대고 있사옵고 밖은 적막칠야 이옵니다. 오목이가 문득

‘나리마님 보선은 참 야릇하게 떨어지오니까. 불보다 굵치가 더 많이 떨어져 와요’

하옵니다. 백학같이 선인같이 춤추는 그 모습이 안전에 떠오르매 사람과 춤은 남이 보고 춤으로 하여 심히 떨어진 보선 굵치만 지어미가 다스리고 있나이다.

깊은 밤, 남편은 오늘도 어느 기생과 즐기고 있는지 모르는데 시어머니도 출타하여 집에는 어린 남매와 하녀만이 남았다. 화자는 하녀와 함께 남편의 버선을 꿰매고 있다. 남편은 춤꾼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남편의 버선은 뒤꿈치가 먼저 떨어진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하녀의 말에 아내는 자신의 신세를 자각한다. 자신은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사람과 춤은 남이 보고 춤으로 하여 심히 떨어진 보선 굵치만 지어미가 다스린다.’는, 이 절제될 대로 절제된 표현은 화자의 착잡한 심정을 어떤 백마디의 말보다 더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 소설의 명장면을 들라면 나는 기꺼이 이 문장을 들 것이다.

아무튼 한번 터지기 시작한 하소연은 이제 멈출 줄을 모른다. 석 달 후에 보낸 다섯 번째 편지에서 마침내 ‘요물(妖物)’ 황진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온다. 남편은 ‘방종은 하되 중심은 잃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건만, ‘근자에 와서 요사한 계집에 빠져 심혼이 혼미하고, 몸이 있되 넋이 없고, 구름위에

뜬 듯 살고 있사오니 어이한 조화이온지 측량부지’ 라는 것이다. 남편이 정신을 잃음과 함께 아내의 언어도 그간의 정숙과 겸양의 너울을 벗어던지고 증오와 공격의 언어로 돌변한다. ‘이 구미호(九尾狐)가 어느 악신(惡神)의 고임을 받고 있사온지 시재가 놀라온데 후안부치(厚顏不恥)로 차마 얼굴이 뜨거워 외설 망측스러운 사구(辭句)를 어지러이 하고 있사오니’, ‘투기는 칠거지악에 드는 것이온적 강작(強作)으로 참사오나 맺히고 맺힌 한이 가슴에 응어리졌다.’는 표현과 함께, ‘한마님 진정 이 몸은 목석이 아니옵니다.’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지는 놀랍게도 이 정숙한 부덕의 화신인 화자가 ‘요 사스런 구미호’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사정을 서술한다. 황진이와 살림을 차리고부터 남편은 ‘인품이 달라지고 전에 없이 조용해지고’, ‘오히려 자상해졌을 뿐만 아니라’, ‘요망한 것이 제법 너그러운 체 자주 사랑(남편)을 본제(본택)에 머물게 하니’ 남편은 살림 차리기 전보다 오히려 외박이 줄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 예컨대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동기나 친척들도 모두 황진이를 칭찬해마지 않는다. ‘체체하고 습습하고 상냥하고 온 그런 계집이 천하에 있겠느냐’는 시어머니의 말, ‘그런 시앗이 어디 있우. 시앗복 두 타고 나아던데.’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화자의 가슴에 꽂힌다. ‘한마님께서는 아시옵나이다. 사리 밝고 투기 없고 체체한 시앗 가진 본택네 마음이 어떠하온가를 아시옵나이다. 차라리 간악하고 발칙하고 방자하게 구오면 이렇듯 외롭고 슬프지는 아니 하올 것이오이다. 스스로가 이토록 초라하옵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오며 자격지심에 마음이 시들 어가지는 아니하올 것’이라며 화자는 외할머니에게 절규한다.

가장 큰 고통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아무도 그 고통을 동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화자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질투심은 누구에게서도 동정을 얻지 못한다. 화자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황진이의 재주와 품성의 빼어남은 그의 고통과 절망을 더욱 깊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남편의 변화이다. 집에 돌아와 사랑에 누워 가만히 노래를 부르는 남편의 소리를 그녀는 우연히 듣는다. 그 노래는 황진이를 그리며 부르는 노

래이다. 노래를 듣고 아내는 절망에 빠진다. ‘이토록 사모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정과 사나이 막중한 모든 것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던진 듯하온 그런 처참한 창은 처음 들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미움도 질투심도 내던진 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다.

삼년의 공백 후에 그녀는 다시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낸다. ‘마음을 아프게 던져 버리오니 남이 현숙하다 하더이다.’라고 화자는 외할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한다. ‘진이의 높은 학식’, ‘자지러진 가무현악’, ‘찌르는 듯한 재치’를 자기로서는 ‘따라가지 못하오니 지아비 마음을 그와 어찌 겨누어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체념에 이른 그녀는 종가집 종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깊고 깊은 절망을 겪은 후에’ 얻은 보답은 ‘현숙하다는 칭송’뿐이다.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목석같은 삶’이며 ‘잇몸으로라도 사는’ 쓸쓸한 인생일 뿐이다.

소설은 들끓는 증오와 미움의 아수라(阿修羅)로부터 체념과 포기의 삭막한 고요함에 이른 16세기 사대부가(家)의 한 부인의 내면을 이렇게 그리며 끝난다. 풍류남아인 남편의 뒷수발을 하는 여인으로서의 한과 원망, 천하명기 황진이와 남편의 애정 행각에 대한 질투, 성욕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법도(法度)와 금제(禁制)의 서슬 푸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면서 참으로 단아한 16세기의 양반 언어로 표출되는 이 소설은 우리 문학에서 실로 희귀한 예에 속한다. 나는, 봉건 윤리의 추상같은 서늘함과 양반 문화의 유한(有閑)한 고아(古雅)함이 작품의 한 축을 이루는 한편, 그것에 대립하는 인간적 욕망의 처절함과 사대부 계급의 위선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이렇게 팽팽한 긴장을 자아내는 현대 소설을 아직껏 보지 못하였다. 물론 서울 사대부가의 일상 언어와 풍속에 대한 박물지적 재현도 이 소설이 선사하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의 하나라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